

## 至愚 李範昇先生과 京城圖書館

「李範昇先生은 1887年生으로 號를 至愚라 하며」 일찌기 日本 第8高等學校를 거쳐 京都帝大 獨法科를 1916년에 卒業하였고 한때 滿鐵會社에 勤務한바 있다. 그때 朝鮮總督府에는 8高 同窓인 伊藤武彥氏와 同校 教授였던 守野榮夫氏가 있었는데 이들이 先生의 官界進出을 極力 勸誘하였으나 이를 拒絕하고 圖書館事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그 援助를 要請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現在 鍾路圖書館의 地 531坪과 同地上建物인 舊韓國 軍樂隊가 使用하는 韓式 瓦家 및 軍樂隊 宿所 등을 賃付받아 圖書館을 始作한것이 1919年 9月이며 名稱을 京城圖書館이라 하였다.

始初에는 少數의 圖書과 日刊新聞, 定期刊行物 등을 主로 閱覽시키는 小規模로 發足하였으나 今後 많은 私財를 들여 事業을 漸次 擴張시키는 한편 閉泳徽氏의 財政의 援助를 얻어 石造建物을 新築하고 整備하므로써 名實相符한 現代式 規模의 圖書館을 이룩 하였다. 記錄에 依하면 그 以前에도 釜山을 비롯한 몇군데에 圖書館이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가 日인들이 자기네 사람들을 爲한 讀書俱樂部 或은 貸出文庫 등의 形式으로 始作한 小規模의 것으로서 一般 韓人에게까지 널리 開放되지 못한 것이었다. 따라서 京城圖書館의 出現이야말로 우리나라 圖書館界의 黎明期를 開拓한 劃期的인 事實로 看做되고 있다. 文化政治를 標榜한 齊藤總督을 비롯

하여 當時 總督府高官들도 數次 來訪하여 實況을 視察하고 刺戟받은 바 컸으며 總督府 圖書館을 爲始하여 各地에 圖書館을 建立하게끔 되었다. 오늘날 公共圖書館은 地域社會와의 緊密한 紐帶를 맺기 爲하여 各種의 文化的인 集會活動을 強調하거나 와 그 當時 先生은 이미 이에 着眼하여 各種의 附帶事業을 實施하였다.

即 兒童館을 設置하고 貧民兒童들을 爲한 2個年 修業豫定の 初等教育을 實施하며 午後에는 兒童閱覽室으로 開放하고 夜間에는 新教育을 받지 못한 舊家庭의 婦女子들을 爲하여 朝鮮女子青年會로 하여금 教育을 實施케 하였다. 또 每 土曜日에는 一般 婦女子들을 集合시켜 學術·衛生·家事 등의 講話를 實施하고 每 日曜日에는 一般 兒童들을 爲한 童話會를 開催하며 月一回 以上の 幻燈·映畫·레코—드 音樂鑑賞會 등을 實施하였다. 그리고 어린이 教導機關으로서의 現代少年俱樂部를 館內에 設置하는 등 實로 多彩로운 事業을 繼發實施하였다. 그러나 圖書館事業은 本來 消耗 事業인만큼 그 財政의 뒷받침을 담당하기 困難하였고 그위에 巨額의 負債를 지게되어 不得已 1926年 3月25日字로 京城府에 그 施設 및 運營을 讓渡하였다.

이러한 先生님의 功적을 종로도서관에 所藏된 文書에 의하여 이번 第一回 도서관주간 全國公共圖書館長會議席上에서 감 사장을 呈물하게 된 것입니다.